

- 주요 뉴스: 미국 10월 생산자물가, 전년동월비 8.6% 상승하며 11년만의 최고 수준 지속
 - 연준 의장, 완전고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참고
 - 미국 상무장관, 공급 병목은 2022년에 개선될 전망
 -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고물가 장기화 상황을 대비할 필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S&P500 지수가 9일 만에 하락.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5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차익매물 출회,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소비자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 분위기 가운데 소폭 하락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0.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7주래 최저 수준
 독일은 조기 금리 인상 전망 약화 등으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9.6원, +1.3원) 0.1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1/9일	11/8일	전일대비			11/9일	11/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85.3	4,701.7	-0.35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4%	1.49%	-5bp
	유럽	482.71	483.61	-0.19%		독일	-0.30%	-0.24%	-6bp
	중국	3,507.0	3,498.6	0.24%	CDS 5y	한국	20bp	19bp	1bp
	일본	29,285	29,507	-0.75%		중국	56bp	54bp	2bp
	한국	2,962.5	2,960.2	0.08%	위험 지표	EMBI+	-	367	-
환율	달러지수	93.97	94.05	-0.09%		VIX	17.78	17.22	3.25%
	유로화	1.1593	1.1587	0.05%		WTI유	84.15	81.93	2.71%
	엔화	112.87	113.23	0.32%	원자재	구리	437.4	439.9	-0.58%
	위안화	6.3928	6.3927	0.00%		금	1,831.9	1,824.2	0.42%
	원화	1,177.2	1,183.1	0.5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0월 생산자물가(PPI), 전년동월비 8.6% 상승하며 11년만의 최고 수준 지속

- 노동부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(8.6%) 수준 유지. 공급 병목, 원자재 부족,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. 전월비 기준으로는 0.6% 상승. 근원 PPI의 전년동월비,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6.8%, 0.4%
- 생산자물가 상승분의 60%는 재화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며, 재화 가격 상승은 휘발유 가격 상승이 핵심 요인. 한편 이번 결과로 다음 날(11/10일, 현지시각)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
- Moody's Analytics의 Ryan Sweet는 미국 내 고물가 상황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.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 차질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의장, 완전고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참고

- 파월 의장은 단순히 걸로 드러난 고용 관련 지표보다는 노동시장의 건전성 혹은 수요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.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연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
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내년 중반이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전망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.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결국 대차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

■ 미국 상무장관, 공급 병목은 2022년에 개선될 전망

- 레이몬드 장관은 내년에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, 공급 병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. 또한 자동차 제조부문의 경우 이미 공급 병목이 해결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

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고물가 장기화 상황을 대비할 필요

- 뉓 총재는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2%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물가상승을 촉진시키고 있는 일시적 요인들이 예상보다 장기화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

■ ECB, 역대 부동산 수요 증가는 저소득층의 주택매입 부담을 가중

- 팬데믹 이후 가계저축이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, 상당 기간 저소득 가구의 주택매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- 슈나벨 이사는 통화정책 결정 시 주택가격 상승 등, 잠재적 부동산 버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. 역대 주택가격은 과도한 수준이며 조정 위험이 있다고 진단

■ ECB 은행감독위원장, 저금리 여건은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

- 엔리아 위원장은 저금리 대출의 확대 등으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. 또한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■ 독일 11월 ZEW 경기기대지수, 31.7로 예상치(19.0) 상회하며 6개월 만에 상승

- 이번 결과는 양호한 대외여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. ZEW의 Achim Wambach는 현재는 공급 병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, 2022년 상반기부터는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고 언급

■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,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성장정체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

- 공급 병목과 브렉시트에 따른 고물가 고착화를 경고.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6.9%, 4.7%를 기록한 이후 2023~24년에는 1.7%, 1.3%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

■ 중국 인민은행 총재,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지속할 방침

- 이강 총재는 디지털 위안화의 이용 방법을 개선하고, 기존 결제도구와의 호환성을 제고하겠다고 발언. 또한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겠다고 부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: 98.2, 9월(99.1), 예상치(-)
- 독일 9월 무역수지(억유로): 132, 8월(130), 예상치(136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소비자물가, 11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미국 9월 도매재고, 독일 10월 소비자물가, 중국 10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, 주식시장 버블의 핵심 위험을 간과 - 블룸버그

(The Fed Ignores a Key Bubble Risk for the Stock Market)

-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연준은 자산시장 버블 우려를 언급. 이후 6개월간 S&P500 지수는 13% 상승하고,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3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
-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실질금리 하락. 물가연동 채권 금리는 실질금리를 시사하는데, 최근 물가연동채권의 30년물 금리는 -0.578%로 사상 최저치. 이에 대안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주식투자자의 수가 광범위하게 증가
- Citigroup의 Matt King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실질금리가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고, 버블의 붕괴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는데,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과 연관이 있었다고 평가. 이에 연준은 금융안정을 위해 실질금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

■ 중국 부동산 업체의 부채 규모, 예상보다 높은 수준일 가능성 - WSJ

(Bad News: Chinese Property Debt Is Even Higher Than Thought)

- 최근 부동산 업체 판타지아의 채무불이행과 자자오예의 대출 상환 실패는 부동산 기업의 부채 관련 불안을 증폭. 특히 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는 부동산 기업들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채를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
- JP 모건은 헝다그룹의 실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시장에 알려진 100%보다 높은 177%에 이를 것으로 추정. 주택경기 부진과 당국의 부족한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 등으로, 부동산 업체의 부채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

■ 연준 파월 의장, 연임 성공 시 금융안정 및 정치적 신뢰를 제고 - Financial Times

(Jay Powell should get a second term at the Fed)

■ 영국 파운드화,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금년 저점을 하회할 전망 - 블룸버그

(Sterling Is Down and the Worst May Be Yet to Come)

■ 코로나 19 이후 고령자의 조기 퇴직, 불평등을 심화시킬 소지 - Financial Times

(Covid retirees show work-from-home revolution has not benefited everyon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